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 초비상...“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전남대병원 의사·간호사·환자·보호자까지 8명 확산에 응급실 폐쇄
광주 사실상 4차 대유행... 고위험시설 관리·방역수칙 1.5단계로 강화
전남, 순천 등 동부권 중심 사흘새 27명 쏟아져... 거리두기 1.5단계로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방역단계는 현 1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수칙은 1.5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 전남대학교 병원과 유치원, 호프집, 유흥업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6면>

광주시는 다만 현 상황에서 방역단계 격상보다는 시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방역단계 격상은 유보하기로 했으며, 상황이 더 악화하면 곧바로 격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남 역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전남은 순천·여수·광양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으나, 휴일을 포함한 최근 사흘동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동선 광주시장은 15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유지하되 16일부터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직 1.5단계 격상 기준(지역감염 10명)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병원, 유흥시설, 주점,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수능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에서 최근 일주일새 지역사회 감염만 35명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다. 특히 전남대학교 병원발 확산세가 심각하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13일 546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9명(의사 4명, 간호사 2명, 환자 2명, 보호자 1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전남대병원 의료진, 직원, 환자 등 5000여명을 전수조사 중인데, 현재까지 3417명을 검사해 양성 9명이 나왔고, 99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 결과는 늦어도 16일 오전까지는 대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병원은 16일까지 응급실을 폐쇄하고 외래 진료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가장 먼저 고위험시설인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의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는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50㎡ 이상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 최근 밀폐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는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도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한다.



봄비는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직원과 환자·보호자 등이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서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은 순천·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전남에선 지난 13-15일 해외감염 유입 사례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순천 15명, 광양 10명, 나주·구례 각 1명이다. 15일 오후 3시 현재 코로나 19 전남

누적 확진자는 244명이다. 전남도는 지역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순천·광양·여수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광양시는 13일, 여수시는 14일부터 거리두기를 격상했

지만 여수·광양지역 산업단지 업체와 순천 은행(신한은행 연향점) 종사자, 가족, 지인 등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혁신도시 주민들 “광주 SRF 나주 반입 말라”

민관거버넌스 가동 난항 예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이 16일 광주시청에서 고형폐기물처리(SRF) 열병합발전소의 광주 고형연료 반입을 반대하는 차량시위를 열기로 했다. SRF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두고 광주시, 한국난방공사,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어 민관거버넌스의 재가동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15일 광주시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나주 주민 400여명은 16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시청 정문 앞 등에서 집회를 연

다. 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해 집회 방식은 차량 시위로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광주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나주 혁신도시 SRF발전소 원료로 보내지 말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요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SRF발전소 매출 비용 가운데 광주시 관리 비용(2700억원 추정)에 대한 관리 주장 철회’ 요구가 본질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광주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SRF발전소에 광주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반입하는 문제는 나주시의 동의가 있었고, 이는 법원 결정을 통해 일단락된 문제로서 나주시와 나주지역 주민들 역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용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나주시의 인허가로 시작된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최종적으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풀어야 할 문제다”면서 “반약, 광주 SRF 반입을 반대했다고 하면, 2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부터 반대해야 하는데,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김형호 기자 cki@kwangju.co.kr

슬그머니...황룡강변에 대규모 아파트 추진 “광주시, 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비난

평동산단 주변 139만5553㎡

광주 곳곳이 고층 아파트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황룡강변 장륙읍지 주변을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전락산업시설부지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지는 평동산단과 황룡강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관리계획 등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곳이다. 사실상 광주시가 ‘난개발’에 나선 것으로, 아파트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보장해주고 전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전락산업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게하는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해 정부부처로부터 국비를 받거나, 뛰어난 아이디어와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아파트 개발 카드’로 건설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광주시의 저급한 개발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광주시 광산구 지족동 735-2번지 일원 139만5553㎡의 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서 의향서 제출 기한을 11월 20일로 해 고작 한 달의 시간을 줬다는 점,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공고 이외에 홍보 마케팅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과거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사업이 신속하게 공고까지 됐다라는 점 등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요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발예정부지는 준공업지역만이 아니라 생산능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돼 있어 아파트단지 등으로의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수용해 21개의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공모지침의 골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부지가 9개로 면적으로는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부지 1개, 학교 5개, 지역전락산업시설 2개, 상업시설 3개, 유통용지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단지에

1000-1500세대가 공급된다면 최소 1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의미다. 사업을 추진할 프로젝트회사의 경우 설립자금을 50억원으로 하고,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공사의 출자 비율을 50.1%, 민간사업자를 49.9%로 해 민간의 부담을 줄여줘 사업에 실패할 경우 광주시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지역전락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기술 생산실적’으로 특허, 신기술, 한류문화 콘텐츠(해외 음원차트에 등재된 가수, 해외 방송국에 편성·방영된 드라마,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 받는 영화 등만 인정)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전락산업시설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되 민간사업자에게 20년의 사용허가기간 및 10년 기간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공고 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용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대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식산업센터] 21실 | [의문 및 문화취업시설] 3개소

※ 본 홍보물의 내용은 최신 및 현재 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업승인 등 일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에 따른 소외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 소외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 계획변경 및 기타 사항은 해당 시공처로 문의하십시오. ※ 본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 관련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AIT 한국자산신탁 삼일건설 삼일루터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죽동 165-14